

최대 불교英사전 <프린스턴 불교사전>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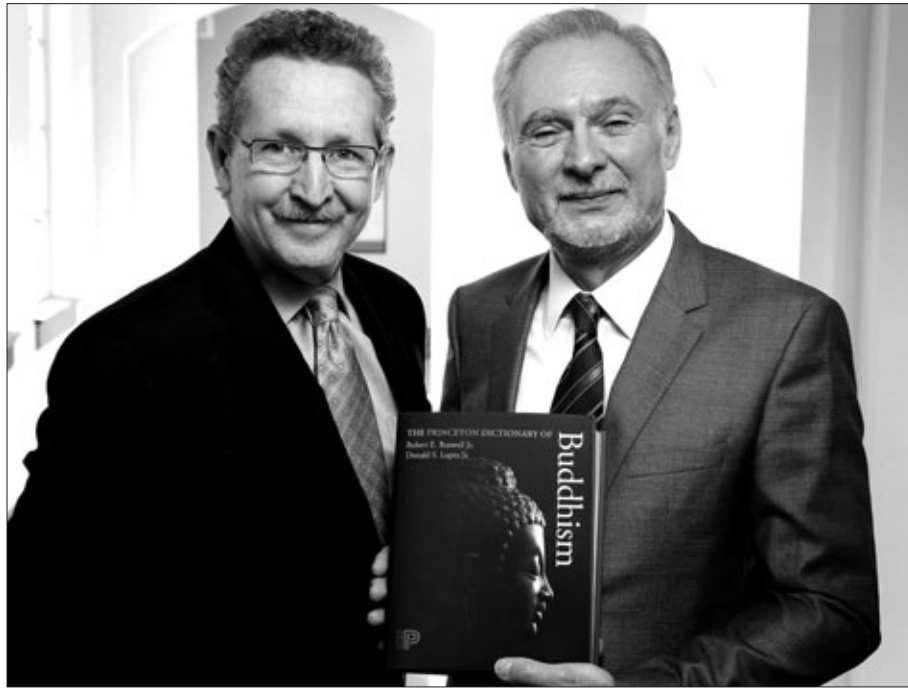
120만 용어 · 1,304쪽 분량
로페즈·버스웰 교수 12년간 작업
'불교 타임 라인' 섹션 차별화

영어권 최대 불교사전이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12월 11일 출간됐다. <본지 963호 10월 23일자 1면 보도>

(UCLA Newsroom)지는 12월 13일(현지시간) "120만 용어가 수록된 영어권 최대 불교사전 <프린스턴 불교사전(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 이하 '불교사전')>이 출간됐다"고 보도하고 "여기에는 전통의 불교 용어 외에도 동시대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불교 용어도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불교사전은 도날드 로페즈(Donald S. Lopez Jr, 미시간대) 교수와 로버트 버스웰(Robert E. Buswell Jr, UCLA대) 교수가 함께 엮은 것으로 총 1,304쪽 분량이다. 이는 앞서 출간된 불교사전의 5배에 이르는 분량으로, 영어권 불교사전으로서 가장 방대한 분량인 셈이다.

"앞서 출간된 불교사전은 한 두 언어와 그 전통의 불교 용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어"고 전제한 로페즈 교수는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으로 표현되는 용어, 개념, 경전,



도날드 로페즈(Donald S. Lopez Jr, 미시간대) 교수(사진 왼쪽)와 로버트 버스웰(Robert E. Buswell Jr, UCLA대) 교수가 프린스턴 불교사전(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을 들고 있다.

저자, 신성(deities), 학파, 사원, 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태국어, 버마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크메르어, 싱할리어, 몽골어 등의 불교 상용 용어도 선별적으로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불교사전은 5,000여 개의 용어에 대해서는 사전적 정의 외에도 '백과사전' 식의 정보를 덧붙여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mind(마음)'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며, 산스크리트 경전 상에서의 정의는 물론, 중국·한국의 선불교와 티베트의 밀교에서의 정의도 제공해, 한 용어를 언어권별로 살펴보고 비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전에 안내한 언어권역별 상호 참조 기능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불교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변화를 유추하게 할 것"이라는 버스웰 교수는 "불교는 지금까지 '세계화'의 여정을 밟아 왔고, 지금도 그런 여정에 있는 종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불교사전은 그 여정의 안과 밖을 여실히 살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UCLA Newsroom> 지에 따르면, 이번 불교사전에서 불교의 '타임 라인' 섹션이 다른 사전과 비교해 특화된 점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타임 라인' 섹션에는 8개의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불교의 우주관, 주요 사원, 신성 장소, 각 불교권역의 주요 순례 경로 등이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다.

"오랜 세월 지속된 불교 포교의 마지막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권역에서의 불교는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전제한 로페즈 교수는 "영어권 불교사전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담고자 노력한 여러 불교계 인사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영어권 불교계가 균형과 발전이라는 가치로 새롭게 세워야 할 또 다른 불교전통에 이번 불교사전이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UCLA대 산하 아시아 연구소(Asia Institute)는 <프린스턴 불교사전(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의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中, 1400년 전 석굴 사원 발견

벽면에는 높이 20M 부처 조각돼



지어진 지 1400년 된 석굴사원이 중국 산시(山西)성 북부 지방에서 발견됐다. 고고학자들은 초기 불교 조각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불상으로 조각된 벽으로 둘러싸인 사원은 불교 유적의 중심지인 타이위안(太原) 주변 산에서 발견됐으며, 푼쯔사(童子寺)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산내 암자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12월 8일 신화통신이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사원은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번성하기 시작한 북제 시대(550~557) 조성된 것으로 556년에 지어진 걸로 추정된다.

발굴 작업에 참여한 중국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책임연구원 리 유윈씨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절은 중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초기 불교 조각에 대한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원은 1117년 전쟁 중에 훼손된 것

중국에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석굴사원이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사원은 불상으로 조각된 벽면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원은 중국에서 가장 큰 석굴사원인 운강석굴.

로 알려졌다. 벽에 새겨진 부처상 중 하나는 길이가 20미터에 달하기도 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 그러나 나머지 조각상들은 비교적 좋은 상태로 보존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원에서는 당나라 시대의 2.6미터 벽화도 발견됐다.

배현진 기자

일본 불교계, 장례 서비스 개혁 시동

낮은 비용으로 대중 감동 피할 터

일본 불교계가 장례 서비스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고 있다 <일본 타임즈(The Japan Times)> 지가 12월 4일 보도했다.

<일본 타임즈> 지는 "지난 3일 나라의 난토 주린-인(Nanto Jurin-in) 사원에서 일본 불교계 최고 지도자 30여 명이 모여 '불교 장례 서비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최고 지도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장례 서비스가 정신·재정적으로 사찰 종파의 근원'이며, 따라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일본 타임즈> 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교계 장례 서비스가 대중들에게 '고 비용'이라는 이유로 비판이 이어지면서 마련됐다.

일본 불교계의 장례 서비스 비용은 최저 30만엔(약 300만원 상당)에서 시작되는데, 실제 장례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각종 부가 서비스가 더해지면서, 그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일본 불교계의 장례 서비스에 대해 '불교 세속화'의 단면이라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타임즈> 지는 준신 하시모토(Junshin Hashimoto) 스님의 말을 인용, "장례 서비스는 지금까지 일본 불교계의 대 사회적 역할로서 대단히 주목받아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불교계는 대중의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평가했다.



일본 불교계의 장례 서비스 비용은 최저 30만엔(약 300만원 상당)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각종 부가 서비스가 더해지면서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 '불교 세속화의 단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난토 주린-인(Nanto Jurin-in) 사원 주지인 하시모토 스님은 이날 토론회에서 "장례 서비스란 산 자와 죽은 자의 마음을 소통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장례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의식 변화에 주목하고,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토 주린-인 사원의 장례 서비스 비용은 16만엔(약 160만원 상당)으로, 일본 불교계에서 최저가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 타임즈> 지는 "재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불교계는 합동 위령제를 마련해 왔는데, 이는 대중의 신심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주목하고 "대중들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일본 불교계가 보다 저렴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명상, 알츠하이머에 효과 있다

치매 위험 환자 8주간 실험...명상이 인지·기억 능력 퇴화 늦춰

아직까지는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는 '머릿속의 재앙' 알츠하이머. 그러나 명상이 신경학적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다.

11월호 뉴로사이언스 레터(Neuroscience Letters) 저널은 장기간의 마음챙김 명상이 뇌의 화학적 성질과 기능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실었다.

이는 건망증과 치매의 중간단계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밝혀졌다. MCI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치매를 알리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연구진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이들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경도인지장애에 환자 중 50%는 5년 이내에 치매로 이행된다고 밝혔다.

하버드 의대 베스 이스라엘 데코니스 의료센터는 경도인지장애에 환자를 두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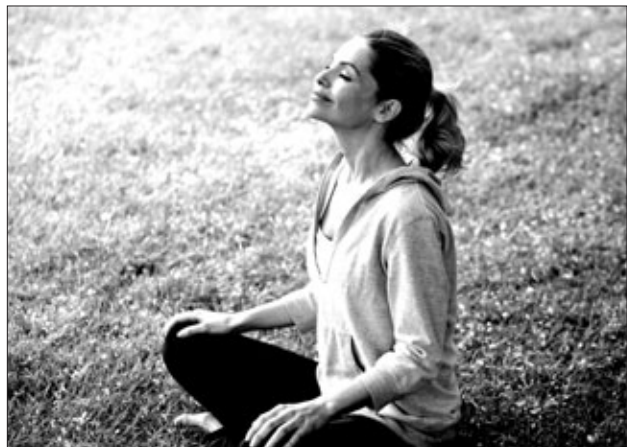
로 나눠 기존 치료법을 받는 쪽과 일주일에 두시간씩,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MBS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로 분류했다. 후자 그룹은 명상과 요가를 주로 하며 하루에 적어도 15분씩 일상에서 마음챙김 연습을 하도록 지도받았다.

8주후 나타난 결과는 놀라웠다.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을 이용해 참여자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실험 시작 전과 후의 뇌 부분에 변화가 일어난 것. 마음챙김 명상을 한 그룹은 해마 부위와 기억과 인지,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분의 퇴화가 타 그룹에 비해 느렸다. 또한 내측 측두엽, 내측 전두엽, 후측 대상피질 등 일명 DMN(Default Mode Network)이라 불리는 부분의 기능도 향상됐다. DMN은 뇌가 휴식할 때 활성화되며 공상과 기억 복원과 관련된 부위다.

레베카 여윈 웰 박사는 "이번 연구는 명상과 요가가 치매와 직결된 뇌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마음챙



마음챙김 명상이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이 미국 연구진들에 의해 밝혀졌다.



김 명상은 단순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인지기능의 퇴화를 늦출 수 있다면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웰 박사의 저서 <마음챙김의 기적(The miracle of mindfulness)>이라는 책에는 탁월한 스님이 일상에서의 마음챙김을 설명한 대목이 나온다.

"연민이나 짜증 어느 감정든 환영하고 같은 크기로 받아들인다. 내가 먹고 있는 오렌지가 내 자신이고 내가 심고 있는 씨앗이 나 자신이다. 나의 마음과 정신을 심는다. 마음챙김에서 연민, 짜증, 오렌지는

모두 신성하다."

명상을 오래 하면 뇌 구조가 바뀐다는 사실은 국내에서도 규명된 바 있다. 한국 뇌과학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등이 뇌파진동 명상을 3년 이상 한 사람과 일반인의 뇌 전체 피질 두께를 비교해본 결과, 명상을 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전두엽과 측두엽 피질 두께가 더 두껍고 주름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통상적으로 뇌에 주름이 많고 두꺼우면 기능이 더 좋다고 해석된다. 전두엽은 특히 사고 능력과 집중력, 감정 조절 등 인지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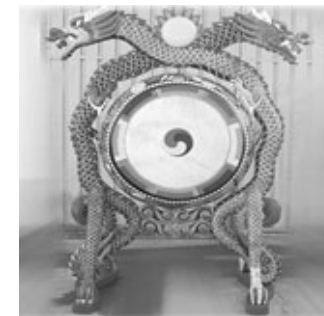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